

# 별이 된 '축구의 신' ... "굿바이 마라도나"

60세에 심장마비로 별세... 전 세계 축구팬들 애도 물결  
펠레 "친구 잃게 돼 슬프다"... 메시 "전설이여 안녕" 추모

아르헨티나 출신의 전설적인 축구선수 디에고 마라도나가 25일(현지시간) 심장마비로 별세했다. 향년 60세.  
클라린, 라나시온 등 아르헨티나 언론들은 마라도나가 이날 오후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근교 티그레의 자택에서 숨졌다고 전했다.  
마라도나는 지난 3일 뇌 경막 아래 피가 고이는 경막하혈종으로 뇌 수술을 한 후 11일 퇴원해 회복 중이었다. 당시 주치의는 수술이 성공적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라나시온은 이날 9대의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했으나 마라도나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마라도나는 60세 생일던 지난 10월 30일 자신이 이끌던 팀 힌나시아의 경기를 앞두고 생일 축하를 받았는데, 그것이 공개 석상에서의 마지막 모습이 됐다.

전설적인 축구 선수 디에고 마라도나의 별세 소식에 전 세계 축구계가 슬픔에 잠겼다.  
아르헨티나 축구 영웅 마라도나가 25일(현지시간) 60세의 나이에 심장마비로 숨진 후 역시 아르헨티나 출신인 리오넬 메시(FC바르셀로나)는 트위터에 고인의 사진을 올리며 "전설이여 안녕"이라고 작별을 전했다.  
메시는 "아르헨티나 국민과 축구계에 매우 슬픈 날"이라며 "그는 우리를 떠나지만 떠나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디에고는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썼다.  
'리틀 마라도나'로 불렸던 메시는 2008~2010년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 고인과 감독과 선수로 지냈다.  
마라도나와 더불어 전 세계 가장 위대한 축구 선수로 꼽혀온 브라질의 펠레도 로이터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친구를 잃게 돼 슬프다"며

유족을 위로했다.  
지난달 80세 생일을 맞은 펠레는 "분명히 언젠가 하늘에서 우리가 함께 공을 찰 것"이라고 말했다.  
포르투갈 출신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의 트위터에도 고인과 나란히 찍은 사진이 올라왔다.  
호날두는 "오늘 나는 친구와 작별했고 세계는 영원한 천재와 작별했다"며 "그는 너무 일찍 떠났지만 무한한 유산과 채워질 수 없는 빈자리를 남겼다. 당상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프랑스 축구영웅 출신의 미셸 플라티니 전 유럽축구연맹(UEFA) 회장은 프랑스 언론에 "우리 과거의 일부가 저물었다. 위대했던 시절이 그립다"고 추모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을 이끄는 조제 모리뉴 감독도 고인과 함께 찍은 사진과 "디에고, 당신이 그립다"는 글을 올렸다.  
아르헨티나 대표팀은 트위터를 통해 고인을 추모하며 "축구에 모든 이의 가슴에 영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월드컵 우승컵을 아르헨티나 품 안에 마라도나가 1986년 멕시코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들고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아르헨 월드컵 우승 이끌어... 허정무와 '태권 축구'

20세에 2년 연속 리그 득점왕  
伊 만년 중하위팀 나폴리 이적  
모든 대회 우승 안겨 神 등극  
마약·알콜 중독 등 구설도



한국의 허정무가 1986년 멕시코 월드컵 한국과 아르헨티나 경기 전반에 아르헨티나의 마라도나를 거칠게 수비하는 모습. /연합뉴스

축구 스타는 축구를 잘하면 될 수 있지만, 신(神)의 반열에는 신화를 써야 오를 수 있다.  
22명의 선수가 90분 내내 몸과 몸을 부딪치며 승부를 내는 축구에서 한 명의 선수가 만들어낼 수 있는 변화에는 한계가 있다.  
26일(한국시간) 심장마비로 60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마라도나는 그 한계의 끝을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보여 준 선수였기에 '축구의 신'으로 불렸다.  
마라도나는 불과 스무 살에 아르헨티나 정규 리그 득점왕과 남미 올해의 선수상을 2년 연속 수상하며 일찌감치 스타덤에 올랐다.  
유럽으로 진출해 스페인 프로축구 명문클럽 FC바르셀로나에서 승승장구하던 마라도나는 1984년 이탈리아 나폴리에 입단하며 본격적으로 새 축구 역사를 쓰기 시작했다.  
마라도나는 이탈리아 세리에A(1부리그)의 만년 중하위권 팀이던 나폴리에 모든 트로피를 안겨줬다.  
나폴리는 1986~1987시즌 구단 사상 처음으로 세리에A 우승을 차지했다. 1989~1990시즌에 한 번 더 우승했다. 세리에A는 당시 유럽 최고 리그로 꼽혔다.  
마라도나는 FA컵 격인 코파 이탈리아(1986~1987)와 수페르코파 이탈리아(1990)도 나폴리에 가져다줬다.  
1988~1989시즌에는 유럽축구연맹(UEFA)컵까지 들어 올렸다.  
선수 한 명이 팀 성적을 이렇게까지 끌어올린 사례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다.

나폴리 시민들이 느끼던 박탈감과 열등감을 경기장에서 해소해줬다. 마라도나가 나폴리에서 신처럼 추앙받게 된 또 하나의 이유다.  
마라도나는 1986년 멕시코 월드컵 8강 잉글랜드와 경기(아르헨티나 2-1 승)에서는 왼손으로 골을 넣은 이른바 '신의 손' 오심 사건을 일으켰다.  
당시 골이 선언되고 잉글랜드 골키퍼 피터 실턴이 주심에게 핸드블러머라며 항의하자 마라도나는 세리머니를 하면서 아르헨티나 동료들에게 "어서 나를 껴안아. 머뭇거리면 심판이 항의를 받아 들일 거야"라고 외쳤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손으로 넣은 이 골로 1-0을 만든 마라도나는 불과 4분 뒤 상대 선수 7명을 제치며 50m 질주한 끝에 추가골을 넣었다. 결국 아르헨티나는 2-1로 이겼고, 월드컵 우승까지 차지했다.  
추락도 극적이었다. 약물 중독이 마라도나의 발목을 잡았다. 23세이던 1983년부터 코카인 중독 의혹을 받던 마라도나는 나폴리에서 뛰던 1991년 약물 검사에서 코카인 양성 반응을 보여 15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받고, 결국 나폴리를 떠나게 된다.  
마라도나는 1994년 미국 월드컵에서는 조별리그 나이지리아전 뒤 도핑 검사에서 적발돼 대회 도중 퇴출당하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은퇴 후 마약·알콜을 중독 등으로 끊임없이 구설에 올랐던 마라도나는 지난해 9월 자국 프로축구 1부 팀인 힌나시아 라플라타를 지휘했고, 결국 60세의 나이로 영면했다. /연합뉴스

마라도나와 비교되곤 하는 아르헨티나 대표팀 후배 리오넬 메시는 스페인 최강팀인 바르셀로나에서만 뛰었다. 메시는 마라도나와 달리 월드컵 우승도 없다.  
특히, 마라도나가 세리에A에서 현란한 드리블과 허를 찌르는 패스로 AC밀란, 유벤투스 등 북부 연고 강팀들을 유린하는 모습은 나폴리 시민들을 열광하게 했다.  
밀라노, 토리노 등 부유한 북부 도시에 대해

### 축구의 전설 디에고 마라도나 주요 기록

<p><b>1960. 10.30</b> 부에노스 아이레스 출생</p> <p><b>1976</b> 아르헨티나 주니어스에서 프로 데뷔</p> <p><b>1977</b>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발탁</p> <p><b>1986</b> 멕시코 월드컵 잉글랜드와의 4강전에서 손에 맞고 들어간 골로 '신의 손' 논란 발생</p> <p><b>1994</b> 미국 월드컵 도핑 테스트에 적발돼 중도 퇴장</p> <p><b>1997</b> 리버풀레프트와의 경기에서 마지막 출전</p> <p><b>2005</b> 쿠바에서 코카인 재치로 자신의 TV프로그램에서 사죄 진행으로 인기몰이</p> <p><b>2008~2010</b> 남아공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 대표팀 감독을 맡았으나 8강전에서 패배(2010)</p> <p><b>2020. 11.25</b> 60세를 일기로 심장마비 사망</p>	<p><b>주요 기록</b></p> <p>통산출전 <b>585</b></p> <p>우승 타이틀 <b>9</b></p> <p>득점 <b>311</b></p> <p><b>1976~80</b> 아르헨티나 주니어스</p> <p><b>1981</b> 보카주니어스</p> <p><b>1982~1984</b> 바르셀로나</p> <p><b>1984~1991</b> 나폴리</p> <p><b>1992~1993</b> 세이아</p> <p><b>1993</b> 뉴웰스</p> <p><b>1995~1997</b> 보카주니어스</p>	<p><b>국가대표 기록</b></p> <p>득점 <b>34</b></p> <p>출전 <b>91</b></p> <p>월드컵출전 <b>4</b></p> <p><b>감독</b></p> <p><b>1994</b> 만다우 데 코리엔테스</p> <p><b>1995</b> 라싱클루브</p> <p><b>2008~2010</b> 아르헨티나</p> <p><b>2011~2012</b> 알와슬</p> <p><b>2017</b> 알무자이라</p> <p><b>2018~2019</b> 도라도</p> <p><b>2019~</b> 힌나시아 라플라타</p>
--	---	---

## 이제 2라운드인데...심심한 순위싸움

男 프로배구 3강 4약 ... 女, 흥국생명 독주 '양극화 고착'

가야 할 길이 멀지만, 프로배구 남녀부 순위 싸움은 벌써 끝물인 듯한 분위기다.  
이제 정규리그 2라운드 진행 중인데도 순위 양극화가 굳어질 조짐이다.  
25일 현재 남자부 경쟁은 KB손해보험(승점 22), OK저축은행(승점 21), 대한항공(승점 20) 3강과 4약의 구도로 진행 중이다.  
나란히 10경기를 치른 3위 대한항공과 4위 삼성화재(승점 11)의 격차는 9점에 달한다.  
시즌 중 갑작스럽게 리빌딩으로 전환한 현대캐피탈이 최하위로 추락하고, 지난 시즌 1위 우리카드도 세트 문제로 5위에 머무는 등 강호들이 하위권을 맴돌면서 남자부 판도는 크게 바뀌

었다.  
경기 중 발목 인대 파열로 주포 나경복이 3~4주 이탈함에 따라 우리카드는 더욱 고전할 것으로 보인다.  
3강의 페이스가 워낙 좋은 테라 당분간 남자부 관전 포인트는 트레이드로 전력을 크게 보강한 6위 한국전력의 행보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군체육부대에서 전역한 공격수 허수봉의 가세로 명가 재건에 도전하는 현대캐피탈의 하위권 탈출 여부도 팬들의 시선을 끈다.  
여자부 판세는 개막 후 8연승을 질주하는 '절대 1강' 흥국생명(승점 22)을 중심으로 3중 2약

의 모양새다.  
GS칼텍스와 IBK기업은행, KGC인삼공사가 중위권에서 경쟁 중이고, 현대건설(승점 5)과 한국도로공사(승점 4)는 하위권으로 미끄러움을 뒀다.  
흥국생명과 하위권 두 팀의 격차는 너무 벌어졌다.  
현대건설과 도로공사가 당장 반전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면, 여자부 '볼 배구' 경쟁팀은 4개 팀으로 조기에 압축될 수도 있다. 이런 V리그 전체 흥행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다만, 김연경, 이재영, 루시야 프레스코(등록명 루시야) 삼각 편대와 국가대표 세트 이다영을 앞세워 독주 중인 흥국생명을 꺾는 팀이 등장한다면 관전 재미는 지금보다 더욱 켜질 수 있다.  
흥국생명은 1라운드에서 도로공사, 2라운드에서 GS칼텍스를 각각 홈세트에서 누르고 가까스로 연승 행진을 이어갔다. /연합뉴스

## 손흥민 '70m 원더골' FIFA 푸스카스상 후보에

손흥민(28·토트넘)이 지난 시즌 번리를 상대로 뽑아낸 '70m 원더골'이 국제축구연맹(FIFA) 푸스카스상 후보에 올랐다.  
FIFA는 25일(한국시간) 한 해 동안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와 감독 등을 뽑아 시상하는 '더 베스트 FIFA 풋볼 어워드 2020'의 부문별 후보를 발표했다.  
남녀 각각 올해의 선수·감독·골키퍼·월드 베스트11과 푸슈카시상, 페어플레이, 팬 부문 등 11개의 시상 부문이 있는데, 손흥민은 이중 한 해 동안 축구 경기에서 나온 최고의 골을 가리는 푸스카스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손흥민은 지난해 12월 번리와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경기에서 약 70m를 혼자 내달리며 상대 선수 6명을 따돌린 뒤 페널티 지역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드는 '원더골'을 선보였다.  
이 골은 지난해 EPL '12월의 골'을 시작으로 영국

공영방송 BBC의 '올해의 골', 영국 스포츠매체 디에슬레틱의 '올해의 골'에 이어 EPL 사무국이 선정하는 2019~2020시즌 '올해의 골'로 선정되기도 했다.  
손흥민과 함께 루이스 수아레스, 셸리 크루스, 히오르히안 데 아라스카에타, 소피 잉글, 즐라트코 유루조비치 등 총 11명의 선수가 푸스카스상을 놓고 경쟁한다.  
FIFA는 전 세계 축구 팬들의 투표를 통해 3개의 최종 후보를 추린 뒤 팬(50%)과 축구전문가 패널(50%)의 투표를 합산해 수상자를 뽑는다.  
잉글랜드 여자슈퍼리그에서 뛰는 지소연(29·첼시 위민)은 '올해의 여자 선수' 후보에 선정됐다.  
루시 브론즈(맨체스터 시티), 비비아너 미데마(아스날), 쿠마가이 사키(올랭피크 리옹) 등이 지소연과 겨룬다. FIFA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는 투표는 현지 시각으로 25일부터 다음 달 9일 오후 11시 59분까지다. 온라인 시상식은 다음 달 17일에 열린다. /연합뉴스